

방산수출금융 기반 확충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Defense Export by Expansion of Defense Export Financing

정영천*

YoungCheon Jung*

ABSTRACT

Korea's defense expor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22. This is because Korean defense companies are the only countries that can meet the needs of importing countries in terms of quality and delivery date as global defense exports, mainly Poland, increase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specially. Defense goods must be supported by export finance for the actual export contract to be executed along with the quality of the product. However, compared to the export scale that increas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export financing cannot keep up with it, so export contracts are delayed, and the fundamental export finance problem that can solve this problem is an important factor.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export financing limit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measures such as syndicated loan by commercial banks, increased capital by state-run banks and guarantee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purchase of Polish government bonds, but all are evaluated as measures that are not easy to operate in the market.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hort-term government countermeasures, this paper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dicated to defense finance, the introduction of exceptions to national limits, and the introduction of defense matching funds and defense ETFs to solve the fundamental export financing problem. Through these, it is hoped that Korea can become one of the four major global defense export countries by utilizing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초 록

'22년도 이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특수를 통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물자 수출이 증가하면서 품질과 납기를 수입국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 방산기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방산물자는 제품의 품질과 함께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수출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증가한 수출규모에 비하여 수출금융의 제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출계약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출금융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금융의 한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자본금 증액, 시중은행의 폴란드 국채매입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나, 모두 시장에서 작동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방안들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기적인 정부 대응방안 외에 근본적인 수출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방산금융전담기관 설립, 국별한도 기존 예외조항 도입, 방산매칭펀드 및 방산 ETF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바란다.

Key Words : 방산수출금융(Defense Export Financing), 국별 신용한도(Country Credit Limit), 방산금융전담기관(Defense Export Financing-Oriented Institution), 방산매칭펀드(Defense Industry Matching Fund), 방산ETF(Defense Industry ETF)

*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교수(jyc0287@hanyang.ac.kr),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

I. 서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2년도 173억달러, '23년도 135억달러의 수출액 달성으로 작년 기준 세계 8위권의 방산물자 수출국이 되었다.¹⁾ 이는 '21년까지 연간 3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상태였던 방산물자수출액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인하여 '22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결과이다. '22년 방산수출액중 폴란드향 수출액이 전체수출액의 72%(124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회와 위기요인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다. 기회요인이란 당연히 방산수출금액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글로벌 전략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전략의 수립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위기요인은 수출국 편중현상이다. '24년도 방산물자수출액 목표가 200억달러인데 만일 폴란드향 수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목표 달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24년 7월말 현재 이미 폴란드외에도 캐나다,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수출계약이 진행중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년보다 상향된 내년도 수출목표²⁾의 달성이 과연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만일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상승한 방위산업의 위상이 한차례 조정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동 수출국 편중현상을 위기라고 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³⁾ 바로 실물수출의 대가인 수출대금 문제이다. 통상 발전소, 공장 등 플랜트나 선박 등 제작에 중장기 기간⁴⁾이 필요한 수출품의 경우 수출금액이 거액⁵⁾인 바, 수출대금의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수출

자인 방산기업⁶⁾은 수출계약 후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자금(생산자금 및 원자재조달자금)이 필요한데 수출계약을 근거로 자기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통해 이를 조달하고, 수출 완료 후 수출대금을 받는다.⁷⁾ 그런데 완성품 방산수출과 같이 물품제작에 장기가 소요되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대금도 장기간 분할 회수하게 되어 수출자 입장에서 단기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금을 단기에 조달하고 수출대금을 장기에 걸쳐 회수하게 되면 자금조달과 운용간 장단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브릿지론 형식의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방산수출의 경우 장기간의 수출대금 회수기간 동안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조건⁸⁾이 필수적으로 수출계약에 포함되는데 수출대금의 장기 회수기간 및 거액인 특성을 감안, 통상 국제금융기관이나 글로벌 메이저 상업은행이 동 대출실행을 확약해야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동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상 수출국의 보증기관(이를 ECA, Export Credit Agency 라고 한다)이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보증을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한다. 그런데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보증기관의 경우, 위험관리를 위해 수출건별로 한도를 정하거나 수입국가에 대하여 국별대출(보증)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과일을 한바구니에 담지말라"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위험관리의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미 단일 방산수출건으로 100억달러에 대한 여신(보증)이 적용된 폴란드의 경우, 추가적인 금융기관 중장기여신(보증)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⁹⁾ 폴란드에 위기상황 발생시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에게 동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수출건에 대한 여신(보증)을 위협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1) 스텝홀름전략연구소(SIPRI)는 최근 5년간의 방산수출액 평균으로 세계 방산수출국 순위를 매기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22년 기준 세계 8위의 방산수출국이다.

2) 방위사업청은 '25년도 방산수출목표액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다행하게도 방산수출국가도 '22년도 4개국(폴란드, UAE, 이집트, 필리핀)에서 '23년도 8개국(사우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 추가)으로 증가하여 방산수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체계도 K9자주포와 K2전차 등 6개에서 천무 등 12개로 증가하였고, 최근 5년 연속 방산수출 세계 10위 이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4) 2년 이내의 거래를 단기거래 2년 이상의 거래를 중장기거래라고 한다.

5) 중장기 수출거래의 경우, 통상 1억달러이상 대금완납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된다.

6) 완성품 수출자인 체계기업 및 부품, 소모품의 수출자인 협력기업을 말한다.

7) 수출품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건의 경우 제작기간에 따라 수출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한다. 이를 기성고 기준 수출이라고 한다.

8) 통상 플랜트와 방산물자 등은 수출국 금융기관이 수입국(수입자)에 장기 저리의 대금을 공급하고 수입자는 이를 수출자에게 기성고별로 상환(이를 인출이라고 한다)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융공급 금융기관에 상환하게 되는데 이를 구매자신용이라고 한다.

9) 실제 2022년도 방산수출건으로 폴란드에 제공한 100억달러의 중장기여신은 국내 정책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폴란드에 대한 여신한도초과로 스페인 은행(산탄데르 및 BBVA)을 통해 여신한도 부족분이 채워졌다. 한편 폴란드의 국별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 A2, 피치기준 A-로 안정적이고 GDP 대비 외채비중도 감소추세로서 국내 금융기관 한도 부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은행(산탄데르, BBVA)이 참여할 수 있었다.

나, 현재 추가적인 100억달러의 여신을 감당해야하는 현실에 당면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는 이를 해소해야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금번 폴란드 수출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요인인 방산수출 제작자금 및 수출대금 회수를 위한 중장기 여신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단일건으로 해결이 가능했던 '22년도 방산수출건과 같은 거액의 수출건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출금융 측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산금융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산수출금융 확대를 위한 정부방안, 해외 주요 방산수출국의 방산수출금융지원제도 및 기존 방산수출금융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한 기존 제도 및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자본시장 활용가능성 파악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단순 수출금융지원외에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산수출금융 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작성목적과 배경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방산수출금융과 거액 방산수출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방산수출금융 한도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안에 대하여 비판적시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인 중장기 방산수출금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해결방안과 한계점을 정리한다.

〈최근 5년간 방산수출 증가액〉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액 (억달러)	25	30	73	173	135
수출액 (조원)	3.3	4.0	9.7	23.1	18.0

II. 방산수출금융 및 거액 방산수출건에 대한 문제

통상 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인적자원(L)과 결합하여 그 기술력을 실현하여 제품화하기 위한 자본(K)이 필요하다. 부족한 인적자원은 내부직원 교육과 외부 전문인력 충원으로 해결하고 자본은 자본금(내부유보이익과 외부 투자금 포함)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활용한다.¹⁰⁾

'22년도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의 경우에도 방산기업은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124억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분에 대한 납품을 수행 중이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하히 폴란드 등 수입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계약내용대로 수령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통상 공장, 발전소 등 플랜트, 선박과 같이 제작에 장기가 소요되고 규모가 큰 수출계약은 물품을 인도하고 일정기간(통상 3~5년)에는 이자만을 받고 나머지 기간(5~15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구조로 이루어진다.(이를 연불금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대금을 늦게 받게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체 조달자금으로 수출품을 만들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대한 이자와 원금(대출금의 경우)을 상환하여야하는데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므로 자금조달과 대금수입간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시 수입국은 국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수출자에게 상환하고 그 대금을 상기한 연불금융의 형태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하게 된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대규모 수출계약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외에 수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글로벌 금융기관(이를 "대주"라고 한다)이 대출자로서 참여하여 수입국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수입자는 이 대출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수입대금은 수입자(수입국)가 대출자인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구조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출입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존재여부가 핵심이다. 금융기관은

10) 자본조달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먼저 내부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외부자금인 대출금, 자기자본의 순서로 기업운영자금을 사용한다.

대출금액이 적정수준(수출물품, 수출자 및 수입자, 수출거래조건 등을 감안)일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금액이 커서(통상 10억달러 이상) 단일 금융기관이 혼자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금융기관이 연합(이를 “대주단”이라고 한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의사결정의 핵심은 과연 대출이후 계약한 시기에 대출금을 잘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혹시나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출국의 다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대신 커버해 줄 수 있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의사결정이 원활할 것인 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를 위한 금융기관을 운영중이다.¹¹⁾

2.1.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금융의 중요성

초창기 글로벌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품질, 납기, 가격 등)과 수출조건(대금지급기간, 이자율, 금융지원 등)이 중요하다.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동일한 요소가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좌우한다. 방산수출시장에서의 제품차별화 요소를 제거하면 수출조건인 대금지급기간과 금융지원이 중요요소인데, 이 중 거액의 방산물품 특성상 대금지급조건은 통상 글로벌 표준화¹²⁾되어 있으므로(일정기간의 이자지급기간 및 원리금 균등상환기간) 수출자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이 글로벌시장 진출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남는다.

금융지원은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우선 부담하는지, 수입자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각각 공급자신용과 구매자신용으로 분류되는데 플랜트, 선박, 항공기 등 대규모 수출에서는 구매자 신용이 대부분이다. 수입자는 동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연차별로 상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통상 수출자의 금융지원이라고 하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동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섭외하여야 한다.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는 금융기관에게도 큰 이익이 되므로 어렵지 않게 대출 금융기관을

구할 수 있으나, 금번 폴란드 방산수출건의 경우, 수출금액이 크고 방산수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ESG문제 등이 있어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 거액 방산 수출건에 대한 금융제공 문제 발생

그런데 최근 폴란드와의 방산물품 수출계약 협의과정에서 폴란드는 작년도에 우리가 제공한 수출금융에 해당하는 금액(약100억달러, 13조원)에 더하여 추가로 10조원(80억달러)의 수출금융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동 금액이 기존에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포함)이 제공한 대출 및 보증금액에 추가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이다.¹³⁾ 더군다나 작년도 폴란드에 제공한 수출금융은 국내 금융기관의 한도문제로 스페인 은행을 통해 상당부분이 제공된 바, 이번에 폴란드가 요청한 추가 10조원 규모는 현재의 국내 금융기관 대출(보증)한도로는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¹⁴⁾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은 현시점 최대 수입국인 폴란드 외에도 UAE, 호주, 인도네시아, 이집트,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의 방산시장에 진출중인 바, 폴란드 한 나라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금융지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욱 문제는 금번 폴란드 요청분을 충족할만한 가용재원이 없다는 현실이다. 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금번 폴란드 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을 지향¹⁵⁾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즉, 글로벌 방산수출 4위 달성을 위해서는 방산물자의 품질, 납기, 산업협력¹⁶⁾을 기반으로 금융제공의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이다.

11) 이를 수출신용기관(ECA)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동 역할을 담당한다.
 12) 거액의 방산물자 수출은 정부간 거래(G2G)로서 정부간 협약에 의해 대금지급조건(기간 및 이자율)이 결정된다.

13) 2009년 UAE바라카원전 수출에 대하여 186억달러의 연불금융을 제공한 경험이 있으나, 이는 원전1~4호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4) 현재 폴란드와 총 30조원 정도의 방산물자 수출협상이 이행 또는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
 15) 연간 세계 방산 수출시장의 5% 정도를 차지해야 세계 4대 수출국이 되는 바, 이는 '22년도 글로벌 방산 수출시장 규모 대비 연간 300억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의미이다.
 16) 2022년도부터는 기존의 절충교역(offset)이라는 용어를 산업협력으로 변경하여 명칭하고 있다.

2.3. 외국의 방산 수출금융제도

(1) 미국의 방산 수출금융

글로벌 방산업계를 선도하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통해 전략적인 목적의 차관과 원조를 통해 방산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외군사금융(FMF) 제도를 통한 금융지원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대외군사금융제도는 단순 대출형식이 아니라 대출과 보조금이 결합된 형식으로서, 유럽국가가 통상 제공하는 상업은행과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을 통한 대출과 보증(상환의무가 있음)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방산수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및 대외군사금융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위상과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시,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는 방산물자 판매에 대한 글로벌 정치적 부담과 금액 면에서도 어려운 제도로 판단된다.¹⁷⁾

또한, 미국은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일부 비군사적 목적의 방산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방산물자 수출시 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매자신용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운영방식이다. 또한, 미국 방산업체의 상업적인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의 방산수출대출보증(DELG, Defense Export Loan Guarantee)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금융제공시 국가별 신용도와 금융제공등에 필요한 위험수수로 포함여부의 문제로 현재는 소멸된 제도이다. 즉, 미국의 방산수출금융은 상기한 공식적인 대외군사금융(FMF)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면 된다.

(2) 유럽의 방산수출금융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경우에는 방산물자 수출도 일반상품의 수출에 적용되는 상업은행 대출과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동일한 방산수출금융제도로 이해

하면 된다. 유럽 국가가 역내외로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자국 및 역내 상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신용기관(EGGD, Coface, Euler-Hermes, Atradius 등)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과 같은 거액(100억달러, 13조원 이상)의 수출이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어 은행의 규모에 비해 충분한 수출금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BPIFrance, BNP Paribas 등의 상업은행이 ECA인 Coface의 보증을 통해 국가별 자체 신용등급을 적용한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고, 스웨덴은 상업은행인 SEK와 수출보증위원회(EKN)의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여 동 제도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여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방산수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중장기 수출금융에 동일하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3) 중국의 방산수출금융

중국의 경우, 통상 방산물자의 경쟁력인 제품의 품질에 더하여 정부차원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있는 수출금융이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의 경쟁력있는 제공이란 금액, 신용공여기간 및 이자율 면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월등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방산물자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에서도 동일한 금융제공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방산물자에만 국한된 방산수출금융 제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방산물자의 수출상황을 보면,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의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은 금융 보다는 제품의 차별화(성능, 납기 및 상대적가격 등)가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외국 방산수출금융제도의 시사점

상기한 방산수출금융은 미국과 중국의 제도와 유럽의 지원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유럽과 동일한 일반적인 중장기 수출금융제도를 방산 수출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방산수출에만 특별히 다른 수출금융제도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특수한 방산

17)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중장기수출건과 비교하여 보아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지원제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는 국책 및 상업은행 대출과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위험담보 기능을 통해 방산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출금융 틀 안에서 거액의 방산수출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방산수출금융 관련 기존 연구

플랜트, 조선, 발전소 등 거액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에 대한 수출금융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 2010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방산 수출금융도 제품의 특성만 다를뿐 중장기적인 수출 및 대금수입은 기존 구매자신용과 유사하므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방산수출이 정부간 계약, 산업 협력(절충교역)의 다양화 및 수출금액의 거대화가 이루어진 2020년대 이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산수출금융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산수출의 발전 가능성에 따른 신수출동력화를 위해 하나금융연구소(2010)는 수출액 증가 추이, 수입국의 금융 제공 요청 증가 및 이차보전제도 같은 방산수출지원제도의 부족을 감안,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여 거액의 방산수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기금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박근서(2012,2014)는 방산수출 금융을 위한 미국의 FMS제도 및 연방수출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고, 김용남(2010)은 이차보전 확대, 수출입은행을 통한 연방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최근의 방산수출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장원준 등(2024)은 K방산수출금융고도화를 위해 방산수출에 대하여는 국별한도를 정하는 OECD국가등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방산수출을 총괄하는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현재의 방산수출금융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방산수출금융은 별도의 연구보다는 중장기 수출 금융지원의 영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선진 방산수출국의 경우, 글로벌 상업은행의 존재로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수출과 같은 수출금융 한도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된다. 상기 3절에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수출금융제도의 근간은 FIMF제도로써 제도 설명을 제외하고는 관련 논문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유럽의 경우도 방산수출금융이 별도의 주제로 연구되어지고 있지 않아 동분야 해외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SIPRI(스톡홀름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연감(2003년도분) 부록에 실려 있으나, 이마저도 논문보다는 방산수출금융 사례(폴란드 및 헝가리)를 다룬 보고서 형식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산수출금융지원에 대한 연구는 기존 중장기 수출금융지원의 영역으로서 다루어져왔고 국·내외적으로 별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될 분야가 아니었으나 글로벌 방산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재 특수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특수한 방산수출금융 한도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독립적인 연구로 판단된다.

III. 방산수출금융 지원 및 정부의 대응 방안

3.1. 최근 방산수출금융 지원 현황과 한계

(1) 최근 방산수출금융의 특수한 현황

방산수출액(계약체결액 기준)은 '22년도 173억달러, '23년도는 135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폴란드 방위산업(방산)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6월말 까지였던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K9 자주포 152문 2차 이행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체결 시한이 사실상 연기됐다. 금융지원 관련 주제들은 올해 11월까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천무 290대 계약에 맞춰 최선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년도 방산수출계약액(173억달러) 중 폴란드 수출계약분이 전체의 72%(124억달러)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수출입은행을 통해 100억달러가 지원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당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15조원) 대비 국가별 신용공여한도인 40% 기준¹⁸⁾을 초과하여 스페인은행을 통해 나머지를 지원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8) 한편,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되어, 대출연계와 무관하게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대출보증이 추가로 가능하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1항)

2차계약분¹⁹⁾에 대하여는 수출입은행 자본금 증액²⁰⁾에 불구하고, 폴란드가 요청하는 지원수준에 미달되어 이행계약체결이 지연중이다.

(2) 문제점 및 한계

상기 금융지원 부족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내 5대 시중은행은 3조5천억원 수준의 금융지원을 동 수출분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폴란드는 이자율, 다양한 은행의 참여에 따른 계약이행 금융계약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2차 인도분 계약체결 시한인 '24년 7월말 기준 이행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 문제점이 대두된 상태이다. 따라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한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본건 계약체결을 위해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확대 및 폴란드 국채 매입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모색중이나 모두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안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폴란드건 수출이행 및 향후 대규모 방산수출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3.2. 정부의 방산수출금융 활성화 방안

상기 논의한대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만을 통한 방산수출금융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다.²¹⁾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책 및 근본적인 증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27년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산업계 및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인 방산수출금융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새로운 방산금융지원 방법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152문에 대한 계약이다.

20) '24.2월말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1) '24.7월중 체코에 대한 원전수출에 대한 지원금액이 3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조선 비즈 '24.4.25자 기사 참조) 수출입은행의 기존 자본금으로 과연 방산수출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더욱 의문시된다.

(1)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방산금융은 증장기 구매자금융 성격을 갖는다. 이는 방산물자라는 제품의 특성을 제외하면 선박, 발전소, 대형 플랜트와 같은 유형의 금융제공이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내 가계 및 기업 대출을 통해 안전한 예대마진의 획득에 안주해 오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은행도 기업임을 감안시, 이는 은행입장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행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산물자를 논하기 이전에 발전소나 선박 등 대형 플랜트에 대한 증장기 금융제공 경험도 일천하고 경쟁을 통한 리스크 담보를 추구하지 않는 국내 금융환경상 솔선하여 방산금융을 제공할 유인도 적다. 또한, 국가간 계약인 방산 수출의 경우, 이번 폴란드 수출건과 같이 수입국 정부의 시중은행 대출 불수용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방산수출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은 국내 시중은행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2)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24년 2월말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되었다. 동 법안은 '22년도 폴란드 수출건에 대한 국가별 한도 초과로 수출금융지원이 제한되어 기수출계약건에 대한 금융제공 불능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25조원 기준 대 폴란드향 수출계약에 대한 금융지원은 최대 5조원이 추가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동건의 금융지원은 8~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 바, 여전히 수입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만일 폴란드에 대한 발전소, 플랜트 등의 수주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한 구매자신용이 불가능해지는 바, 방산수출 단일건으로 다른 수출건을 구축하는 부의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추가적인 대규모 수출입은행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지만 금번 수출입은행법 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동 법률개정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 바,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2차 폴란드 수출건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3)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확대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대출기능은 없고 대출기관(은행 및 여신전문기관)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보험(보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프로젝트별 위험인수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장기 구매자신용을 제공할 금융기관이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대규모 위험인수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무역보험기금 부족이 당연한 문제이다. 즉, 수출입은행과 유사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4) 폴란드 국채 매입을 통한 간접적 지원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폴란드 장기국채를 매입할 경우, 폴란드는 이 재원으로 방산물자 구매대금을 상환하고 국채 만기에 상환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구매자신용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OECD국가인 폴란드의 국채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안전자산으로 은행 위험가중 자본구성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러한 폴란드 국채매입을 통한 간접적 금융지원이 폴란드정부와 은행 이사회에서 문제 없이 수용될 수 있는가와 국채매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중은행이 과연 방산업체만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IV. 방산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최근의 글로벌 상황에 따라, K-방산의 최대 호황기가 도래하였다. K-방산의 우수한 품질과 적기 납기에 따른 글로벌 방산수출의 비약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일국가에 대한 거액의 수출금융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제공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폴란드 2차 수출분에 대한 금융제공이 난망한 상황임에 따라, 이 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본 건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도 K-방산의 금융제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제기한 정부 지원방안의 한계적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이외의 방산수출금융 전담기관 설립 및 기존 중장기 방산수출금융 제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국별지원한도 특별 증액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시중은행의 신디케이트론 및 국채매입 방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자본시장 활용방안으로서 방산수출 매칭펀드 및 방산 ETF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방산수출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설립

기존 수출신용기관 중 대출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동 대출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출과 보증이라는 장기 플랜트성 자금지원을 운영중이나, 이에 한계가 분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방산수출시 계속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외로 거액의 연불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은 본건 지원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폴란드건과 같은 거액의 수출금융제공을 위해서는 방산수출금융 전담기관을 신규로 설립하여야한다. 동 기관은 미국의 FMF(대외방산물품 판매금융, Foreign Military Financing)를 참고하여 직접적인 구매자 신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보조금 형식이 아닌 직접대출 형식으로 운용) 즉, 시중은행과는 달리 기초 자본금을 바탕으로 정부차입²²⁾ 또는 자체 채권발행을 통해 기존 여신전문기관이나 투자은행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같은 성격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4.2 기존 금융기관 방산금융 특별 한도 증액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ECA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일견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국가별 대출한도와 단일 프로젝트

22) 여기서 정부차입이란 한국투자공사나 예금보험공사의 운용방식을 원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한 대출(보증)한도 문제이다. 현재 양 기관의 국별 및 프로젝트별 한도는 100억달러 수준²³⁾으로서 이미 1차 수출분에 대해 모두 소진되어 이번에 2차로 추진하는 폴란드 향 방산물자 수출의 요구액인 추가 10조원 상당을 지원할 수 없는 한도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시행령 제16조(대외채 무보증)의 한도에 예외규정을 두어 증액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 큰 부담일 수 있으므로 실행여부를 담보할 수는 없다.

4.3 방산매칭펀드 설정

'24년 6월말 현재 방산관련 펀드 및 지원은 방산기술혁신펀드('23~'25년간 총 1,200억원 예정), 이차보전 용자사업, 방산기업 협력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23년 1천억, '23.4.6자 시중은행 보증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 대출(연간 2천억원 수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2,781억) 등이 있다. 방산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가 지원중인 다양한 기술혁신펀드와 유사한 성격이며, 이차보전용자제도는 글로벌 금리 안정과 국내 정책금리 대비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²⁴⁾ 방산 수출 금융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및 보증기관(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의 경우, 기존의 신용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착시효과가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부연하면 정책금융지원(2023.4.6.자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간 수출금융지원협약) 발표 후²⁵⁾, 방산기업들은 기존 대출에 불구, 신규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만일 방산(수출)기업이 기존에 자체 기업 신용도 및 신사업확대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한도에 더하여 신규로 수출금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기업 자체의 신용도 및 매출(수출)계획에 따라 기대대출을 감안한 한도에 여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추가 대출을 해주는 구조인 것이다. 만일 정책금융의 기능이 추가적인 자금투입없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간 협약은 적어도 금융현장에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수출금융지원이 방산수출기업의 제작자금(원자재금융 및 생산자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보증기관과 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현대,LG,포스코 등 대기업은 자체 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자체펀드를 조성, 동사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다. 이를 대-중소기업 상생펀드라고 한다. 동 펀드를 수탁한 은행은 출연 대기업의 협력기업에게 기존 신용도 기반 대출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한 대출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협력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상기 논의를 종합해보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산협력기업의 수출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상생펀드 개념의 펀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방산펀드 조성액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바,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여 방산펀드와 매칭을 통해 시장펀드 형식의 펀드를 설정하면 규모와 운영기간 면에서 유효한 방산펀드가 조성되고 운영될 것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민간자금의 모집이 중요한데 이는 채권, 주식 및 예금형태가 거의 대부분인 퇴직연금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퇴직연금펀드²⁷⁾와의 협업은 방산펀드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 자금의 매칭이 항상 어

23) '24년 2월말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0조원 증액(15조원→25조원)되어 납입자본금 기준 산술적으로 국가별 최대 지원한도는 25조원의 40%인 10조원이다.

24) 2022년도 금리 상승기에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8~10%였을 당시에는 이차보전용자한도(100억원 수준)가 급격히 소진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전에는 거의 수요가 없었다.

25)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네트워크론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파트너 보증등이 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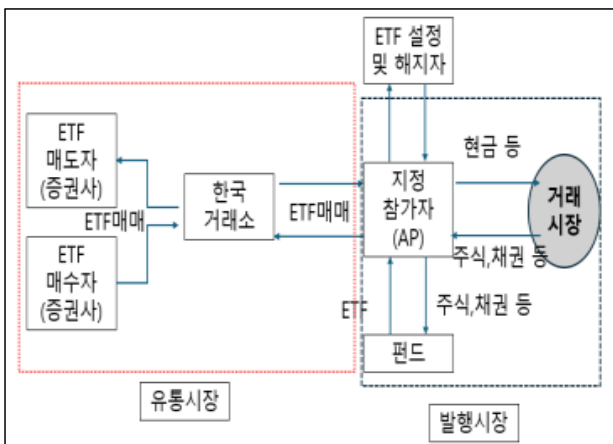
26)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은 전체 시중은행과 개별적으로 다양한 이름의 협약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은 위드론이라는 이름으로 수출기업 대상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금리 및 한도면에서 우대한다는 협약에 불구, 실제 금융현장에서는 금리우대(0.5% 이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도면에서의 특별하고 부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소요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별도 펀드를 통한 특별하고 부여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는 은행의 신의성실 대출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27) 최근 퇴직연금펀드는 디폴트옵션(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돼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을 도입하였는데, 이 디폴트에 방산펀드 운영을 포함하면 퇴직연금운영에 다양성이 더해져 위험-수익 구조하에서의 위험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식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21년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전체 수익률은 연 1.68%에 불과하다.

려운 정부매칭펀드의 문제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방산 ETF 추가 상장 추진

최근 ETF가 급증하고 있다²⁸⁾. 이는 적정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다양한 펀드를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K-방산의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등록)중인 방산 체계 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하여 투자한 방산ETF²⁹⁾는 '23년도 42.13%, '24년 7월5일자 기준 30.51%(24년 연초 대비)의 수익률³⁰⁾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투자론 교과서에서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장초과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³¹⁾



< ETF 시장의 구조(출처:한국/홍콩거래소)>

4.5 기타 활용가능한 단기적 해결 방안

국책은행을 통한 대규모 방산수출금융지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수출입은행의 한도부족과 이를 보완할 수출입은행법 추가개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안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은 수입국인

폴란드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이 장에서 제시한 수출금융지원 방안외에 다른 대안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가지 방안을 추가로 제안코자 한다. 첫째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방안이다. 한국투자공사법(KIC)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활동을 수행중이다. 따라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풀에 수출채권을 포함시키면 국책은행의 여신공여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로는 대폴란드 방산수출건에 폴란드에 대한 신용제공을 통한 구매자신용이 아닌 수출자의 공급자 신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2차 폴란드향 수출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자체 신용으로 수출이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출채권을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유동화하면 구매자신용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공급자 신용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중장기수출건의 대세가 구매자신용으로 변화하여 현재는 공급자 신용을 거의 활용하지 않으나 구매여 공급자신용 방식 수출을 도의시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도 수출자가 모두 글로벌 대기업이므로 수출채권유동화가 충분히 가능한 점을 감안, 동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필자가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본 건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을 공급자신용을 통한 수출채권 유동화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최근 폴란드향 2차 수출계약에 따른 구매자신용 제공을 위한 금융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폴란드향 수출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액의 수출신용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특수 상황으로서,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 없던 문제이다. 다만, 2023년 계약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방식(수출입은행과 ECA를 통한 보험)만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근시안적인 태도가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도 수출국과 방산체계의 다양화로 방산수출 연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폴란드 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K-방산 위상

28) '23년 6월말에 이미 상장 ETF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하였다.(매경 이코노미 '23.7.10자 기사)

29) 이 ETF의 이름은 '아리랑 K방산Fn'이다.

30) 아리랑 K방산Fn은 방산기업 10개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31) 이를 쟈센의 알파(Jensen's α)라고 한다.

에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방산 업계는 기존 수출금융제도의 틀을 벗어나 민간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폴란드 수출 2차 계약분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수출입 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추가 대출 및 보증, 시중은행 신디케이트론 및 폴란드 국채매입 등의 방안은 기존 제도의 틀안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장한대로 이러한 방안의 실행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가용자원의 범위를 기존 시스템에서 한단계 넓혀 국내 자본시장을 활용한 수출금융 제공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신기능을 가진 방산수출 전담 금융기관 설립, 방산매칭펀드 및 방산 ETF를 제안하였다. K-방산의 성과가 반도체와 배터리 기반산업 못지않게 자본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 정부와 방산업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통해 폴란드 건외에 다수의 대형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전문성있는 자본시장 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산수출지원 방안뿐 아니라 기존 수출금융으로 담보할 수 없는 거액 중장기수출건에 대한 자본시장 활용방안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용남, 방산수출 활성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2011,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박근서, 방산수출 국제대금결제와 방산수출금융에 관한고찰, 2014.9, 무역보험연구 15권제3호, pp.139~166
- 3) 박근서, 방산수출 정부간거래(G2G): 우리나라의 현황과 미국 FMS제도의 시사점, 2012.6, 무역보험연구 13권제2호, pp.139~164
- 4) 장원준 등,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2024.1.31., 한국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이슈) 제158호
-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 및 운용 방안, 2010
- 6) 한국거래소, 자산관리 이제는 ETF다, 2013
- 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 금융지원 상품, 2024.2
- 8) 홍콩거래소, ETF핸드북, 2018
- 9)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 Homepage
- 10) Peter C. Evans, The financing factor in arms sales: the role of official export credits and guarantees, SIPRI Yearbook, 2003, appendix 13